

도깨비 민담(民潭)

강 오 식

자유기교가

시골에서 늦은 밤에 장이나 마실을 갔다 오다 만난 도깨비와 밤새워 씨름을 겨루었는데 새벽에 보니 도깨비는 온데간데없고 닳아빠진 빗자루만 남아 있다거나, 또는 흑부리와 도깨비 방망이를 바꾼 이야기 등 도깨비는 우리의 옛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친숙한 이름이다.

흔히 사람이 열토당토않은 일을 당했을 때, 도깨비 장난 또는 도깨비 조화라는 말을 한다. 이는, 도깨비는 장난기가 많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가령 솔뚜껑이 종이쪽처럼 구겨지거나, 솔 안에 있던 떡시루가 뒷간에 있다든지, 국수가 뒷동산 소나무에 걸려 있고, 외양간 황소가 지붕 위에 앉아 있다는 식이다.

또 어떤 사람이, 밤에 신기하게도 게가 잘 잡혀 좋아라 하며 밤새워 잡고 있는데, 새벽녘에 누가 “김 서방, 게 많이 잡았소?” 해서 돌아보니, 키가 9척이나 되는 큰 사람

이 킬킬거리며 달아나고, 동이 터서 보니 망태기에 쇠똥만 가득 있더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민담과 설화에는 도깨비 이야기가 많이 전해온다.

도깨비는 민간신앙에서 믿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하나로 한국 전래문화의 특징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상물인 것이다. “꼭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고 흔히 말하는 도깨비는 우리 민족의 뇌리에 오래도록 깊이 각인되어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생활의식 속에서 그 존재는 살아 있다.

그러면 도깨비는 언제부터 있어 왔는가? 《삼국유사》등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삼국시대부터 도깨비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도깨비는 그 이름도 도채비, 뚝가비, 독각귀, 독갑이, 허주, 허채, 망량, 영감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 한자로는 ‘독각귀(獨脚鬼)’라고 표기 하는데, 즉 다리가 하나인

귀신으로 일반적인 귀신과는 다른 존재로 씨름을 청하는 도깨비의 다리가 하나였다는 이야기 등에서 그 형체를 상상할 수 있다.

도깨비는 불도깨비, 거인도깨비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것과, 보이지는 않고 사발 깨지는 소리, 말밥굽소리, 기왓장 깨지는 소리와 같이 비가시적인 도깨비가 있다.

또한 불을 켜고 다니는 등불도깨비, 굴러다니는 달걀도깨비, 명석도깨비, 흙이불도깨비 등과 같이 그 모양과 생김새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사람이 죽은 다음 그 영혼이 변해서 되는 귀신과 달리, 도깨비는 나무, 돌 등의 자연물이 변해서 되고 산과 들에서 흔히 나타난다.

도깨비는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무엇을 한번 알게 되면 그것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계속 반복한다. 한번 돈을 꾸어주었더니 매일 저녁 끈 돈을 가져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예화이다.

귀신과는 달리 매우 인간적인 성격을 지닌 도깨비는 영악한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는 순진함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래 부르기 등 노는 것을 즐기고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도깨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심술을 잘 부리고 장난을 즐긴다는 점이다. 예컨대 장에 갔다오는 사람에게 씨름을 청하여 하나뿐인 다리 때문에 자꾸 저도 끈질기게 덤비는 이야기라든지, 잔치가 벌어진 어느 집에 나타나 술뚜껑을 술 안에 우그러뜨리고 황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는 도깨비의 심술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김시습(金時習)은 ‘금오신화(金鰲新話)’에서 도깨비에 대하여, ‘굴(屈)하고 펠 줄 모르는 울결된 요괴’라고 하였다. 또 요물의 신은 인물과 혼돈되어 산에 있는 요물, 물에 있는 요물, 수석(水石)의 요물, 물건을 잘 해치는 요물, 남을 괴롭히는 요물, 사람을 유혹하는 요물로 구분하여 이를 모두 귀(鬼)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 중종 때의 김안로(金安老)가 지은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에는 도깨비가 여자로 변해 사람을 유혹하는 기담(奇談)이 있다. 어느 길손이 으스스 달빛을 받으며 인적이 드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동침하였다. 별안간 천둥과 벼락이 치는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자신은 다리 밑에 누워 돌을 베고 몽당비를 안고 있었고, 주위에 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이 도깨비로 변한 경우이다.

민담과 전설에는 도깨비 이야기가 비교적 많다.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도 있지만, 대개가 무서우면서도 어리석어서 잘 다루면 오히려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금은보화가 원하는 대로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거나, 쓰면 보이지 않는 ‘도깨비 감투’를 인간에게 주기도 하면서 사람과 잘 어울린다.

도깨비가 사는 곳은 일정하지가 않으나 어두운 숲이나 들판, 산길, 계곡, 절간이나 험한 집, 우물 등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도깨비는 음기(陰氣)의 영이고 음귀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음침하고 그늘진 곳에

있다가 어두운 때나 밤에 주로 나타난다. 낮이라 하여도 궂은비가 부슬부슬 내려 어둡고 컴컴한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속담에 ‘도깨비 놀기 좋은 날이다’라는 뜻은 궂은날을 가리킨다. 그리고 도깨비는 사람의 손 때가 묻은 빗자루, 짚신, 체, 절굿공이, 부지깥이 같은 것에서 생긴다고 한다.

도깨비는 신통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살해할 만큼 악독하지도 않다. 우직하고 소박하여 인간의 꾀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면이 있다. 사람의 간교함에 복수를 하기도 하지만 되레 사람을 잘되게 도와주는 결과도 초래한다. 도깨비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욕심쟁이와 악인을 꾸짖으며, 노래와 춤도 잘 추는 풍류쟁이로서, 일종의 초능력자라 하겠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결코 해치지 않는 도깨비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눈

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깨비는 기왓장에서 찾을 수 있다. 기와지붕의 맨 끝에 있는 망와에 도깨비 문양을 그려 넣은 것이다. 집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잡귀를 물리치고자 도깨비를 내세운 것이다.

도깨비 기왓장은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에서 출토된 기와 중, 머리에 용각(龍角)이 돋고 두 눈을 둥그렇게 부라린 도깨비가 있다. 큰 주먹코, 유난히 크게 벌린 입에는 아래위로 송곳니가 튀어 나왔고, 얼굴에는 더부룩한 우모(羽毛)가 사자의 그것처럼 덮었다.

이와 같이 도깨비는 우리의 전통 민속 문화 속에서 해학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도깨비방망이’나 ‘도깨비감투’ 등으로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하는 인간의 꿈과 욕망을 대신하기도 한다. 